

# 아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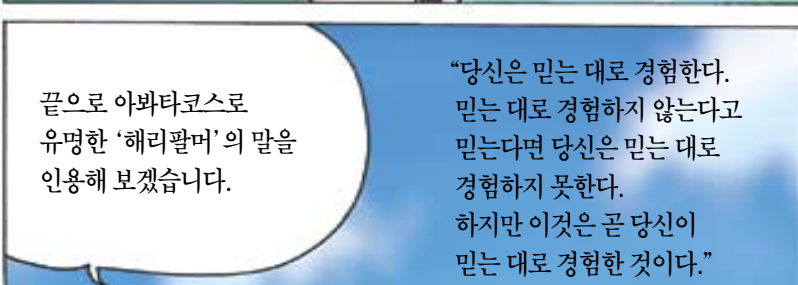
에서 건진 지혜 (제36화)



## “부린대로 거두는 원리(2)”

〈출전 : 중아함경 제3:13도경:1-435상〉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이렇게 들었다

U대화는 끝나고

## 이산가족의 '슬픈 추석'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끝났다. 북한을 비난하는 일부의 시위 때문에 소동을 치르면서도 큰 일 없이 끝났다. 광화문 앞에서 인공기를 불태우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향해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보며 당황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언제 참가국을 향해 이런 모욕을 준 일이 있었던가. 갑자기 북한의 지도자를 가면 쓴 돼지로 묘사한 '똥이장군'이라는 만화영화가 떠올랐다. 보기 흉한 흑을 단 김일성 주석이 북한 주민들을 기계에 넣고 피를 뽑아 먹는 반공화권의 그림도 생각났다.

선재는 나이 들면서 그것이 얼마나 열등도양은 묘사며 사실은 북한 주민들도 우리의 전혀 다를 게 없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생각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천지 그대로가 나와 같은 뿌리이며 만물 그대로가 나와 일체(一切)여서 천지만물이 나 아닌 게 없다는 불교인의 눈으로 보면 너무 어이가 없다. 천지는 관두고라도 사람을 저렇게 색안경을 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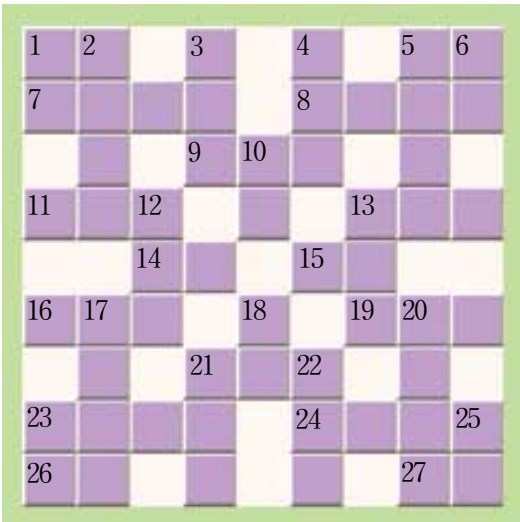
고 바라보니 말이다. 그들과 선재가 같은 점이란 똑같이 '통일'을 말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통일과 선재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우바세계경>에서는 중생을 바라보는 보살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설명했다. '남의 착한 일을 나타내 주고 남의 허물을 숨겨주며, 남이 부끄러워할 것은 알리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듣거든 발설하지 않으며, 적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크게 감사하라 생각하고 자기에게 원망하는 자에게 항상 선심을 내며, 꾸짖는 자와 와서 때리는 사람을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며, 모든 중생을 부모와 같이 보고 섬겨라.'

이제 추석이다. 인공기를 태운 사람도 명절에는 자신의 가족과 친지를 위한 마음을 낼 것이다. 그들이 즐겨그는 명절에도 북한에 가족을 둔 남한의 760만 명은 지금의 현실에 눈물짓는다. 이것이 어쩌면 북한을 감싸안지 못하는 그들의 더 큰 잘못일지도 모른다.

■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 상식퍼즐



1. 영광 5. 흰 옷 7. 이름난 산과 큰 내 8. 마음과 마음이 통해 전함 9. 지혜의 밝은 눈 11. 대기의 상태와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13. 전쟁에서 이긴 나라 14. 법문을 들을 15. 괴이한 번고 16. 탁발하는 승려 19. 어떤 이성을 그리워한 나머지 생기는 병 21. 방생을 하는 연못 23. 사람이려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 24. 자신이 짓고 자신이 대가를 받는다 26. 구슬과 옥, 값지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비유 27. 초상난 집에 부조로 물건이나 돈을 전하는 일

<437호 '교리퍼즐' 정답>



1. 밝은 빛 2.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범해경을 설하던 자리 또는 그 설법의 모인 3. 별 세계, 속세와는 아주 다른 좋은 세계 4. 천리 밖을 볼 수 있는 눈 5. 백번 씌워 백번 이긴 6. 믿지 못하여 이상하게 생각함 10. 중국 선종의 제6대 조사 12. 학문을 연구하는 승려 13. 사물이 생멸변화하는 모양 17. 나쁜 구업을 지은 사람이 받는 지옥고, 보습으로 허를 가는 고통을 받는 지옥 18. 생물이 태어나는 4가지 형태 20. 4생의 자비로운 아버지, 곧 부처님 21. 미지수에 특정한 값을 주었을 때 성립되는 등식 22. 지방자치제도 23. 도장을 찍을 때 묻혀 쓰는 붉은 재료 25. 뜻을 이룬, 바라던 대로 되어 이기가 으뜸.

## 육법등 (六法燈)

의장등록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채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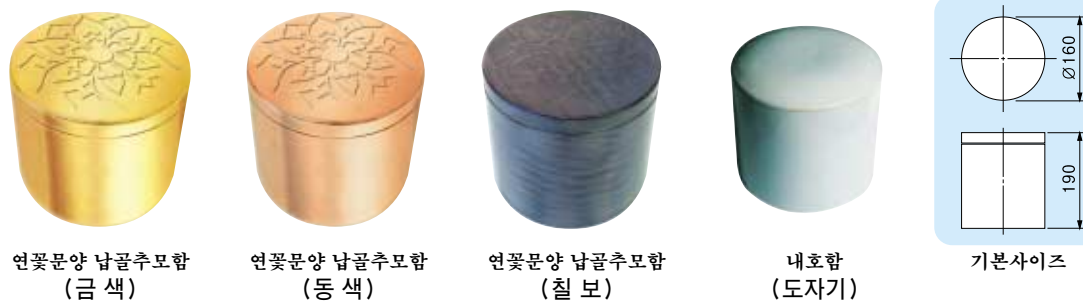
(주)동원전기

주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스 : 031)541-1419

출판 및 대리점 모집

## 신소재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별도주문가능)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을 평안하며 안전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추모함 선택은 올바르게!

- 납골당이 공영화 되어가고있는 과정에서 문제발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처럼 가족과 참배하러 왔는데 심한 악취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고 마지못해 참배를 올리던 일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악취나는 유골을 그냥 방치해 두는것이 참된 효(孝)일까요? 이미 악취가 생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악취와 벌레까지 생깁니다.
  2. 이회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기법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의 바람입니다.
-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가볍고 강하며 외관 또한 아름다운 이회사의 납골추모함이 있습니다. 이회사의 납골추모함은 납골당이 붕괴되더라도 강한 견고성으로 고인의 유골이 유실됨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을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외관의 문양은 원하시는 문양 또는 글씨를 삽입 할 수 있으며, 문양 삽입후 코팅 처리되어 오래도록 동안 할 수 있도록 정성들여 제작됩니다.



이화사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